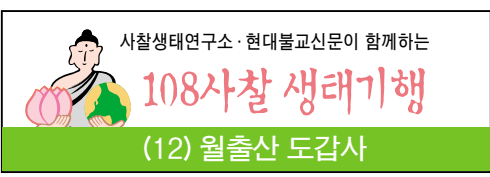




산중습지 형성, 다양한 식물 공생도량



경칩이 가까워지면 눈 녹은 물로 개울물이 불어나면서 물소리가 날로 달라진다. 남도의 산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개울물 소리를 '마심'이라고 한다. 월출산의 마심은 버들개지를 튀우고, 바위 속에 숨어 있던 물고기와 나무껍질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곤충들을 불러낸다. 고로쇠나무도 마심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물을 빨아올린다. 겨우내 묵이 말라 푸석했던 논밭들도 그 물로 겨울 갈증을 푼다. 마심은 생명의 물이다. 산자락 어디선가 불평 우는 소리 들린다. 옛글에 '春維自鳴(춘치자명)'이라고 했다. 누가 불려서 불이 오는 게 아니며, 누가 잡아당겨서 불꽃이 올라오는 게 아니며, 누가 부추겨서 쉼이 오는 게 아니다.

봄이 오면 모두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길옆으로 도갑천 물줄기가 마심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지금은 위쪽에 물길을 틀어막은 저수지 때문에 수량이 줄었지만, 도갑천은 그 옛날 서해의 배들이 올라와 마을에서 구워낸 도자기들을 실어내던 수운로였다.개울은 여울과 소가 적당하게 어울려 있어야 한다. 여울만 이어져 있거나 소만 따로 있으면 생태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여울은 물속에 공기를 넣어주고, 소는 부유물이 침전하여 수서곤충이나 혐기성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이다. 수질면에서도 여울과 소가 함께 있어야 좋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저수지가 나온다. 지난 정월에 방생을 다녀간 흔적들이 제방둑에 여기저기 남아있다. 저수지를 하얗게 덮었던 얼음은 다 녹았지만, 물은 아직 얼음만큼이나 차다. 저 차디찬 물속에다 과연 무슨 고기를 방생했을까... 최근 방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싹 트고 있는 있지만, 언론과 환경단체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다. 저수지를 지나면 왼쪽으로 노적봉(420)이 등적하게 앉아있고, 오른쪽으로는 도갑산(375)과 주지봉(491)이 이웃해 있다. 노적봉과 도갑산 사이

웅단처럼 푸르게 깔려있다. 제 고향인 남중국을 떠나 산 설고 물 선 남의 땅에 와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차나무는 보면 불수록 그 생명력이 대견스럽다. 곡우를 전후해 절에서 차잎을 따서 튀는다고 한다. 따뜻한 남쪽지방에서는 절집의 조경수로도 적합하다. 가지를 적당히 쳐주면 바자율로도 석 좋다. 사철 푸른 데다 겨울에 꽃까지 볼 수 있으니 화양목보다야 훨씬 낫다. 해탈문을 비껴 동림포 토굴로 가는 길이 나왔다. 큰 절을 돌아난 그 길은 흙냄새 나는 맨땅이다. 게다가 분위기까지 호젓해서 포행산책로에는 딱이다. 대나무와 이대 가 밭을 이룬 숲 속에 잎 푸른 난대수인 불가시나무들이 서 있다. 불가시나무는 큰 절 뒷산에서도 볼 수 있다. 불가시나무 숲은 월출산이 북방한계선이다. 따라서 도상으로 보면 도갑사 북쪽으로는 자생하는 불가시나무 숲을 보기 어렵다. 불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잘 자란 것은 높이가 20미터에 이른다. 동백나무와 비슷한 나무껍질은 매끄러운 편이다. 긴 타원형을 한 잎은 길이가 10센티 인편이며, 혁질에 윤택이 있다. 암수 한 나무로 꽃은 5월에 핀다.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는 다음해 가을에야 익는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도갑사 경내가 활짝 열린다. 묘사재 앞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서양이 꽃 망울을 터뜨렸다. 서양은 중국 원산으로, 상록 관목이다. 한줄기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잎은 두껍고 광택이 있다. 특히 향기가 좋고 진해서 '천리향'이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다. 오중탑 옆 느티나무 가지에 오색딱따구리가 붙어서 목탁소리를 내며 먹이를 찾고 있다. 딱따구리는 숲속의 의사와 같다. 나무 속에 숨은 해충들을 구제해 주기 때문이다. 웅추폭포 옆을 지나면 도선국사비각 앞을 지나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로는 흥제골을 지나서 역새밭-향로봉으로 이어진다. 놀랍게도 이 흥제골에 버들치와 함께 갈겨니가 살고 있다. 갈겨니는 파리와 매우 비슷하지만, 눈이 크고 길다. 수량이 많지 않고 수심이 얇은 흥제골에 갈겨니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록해줄 만한 일이다. 너른곳에 사는 갈겨니에 비해 씨알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노가리만큼이나 굵고 크다. 갈겨니는 물 흐름이 느리고 모래가 깔린 여울에다 알을 낳는다. 유감스럽게도 흥제골에는 그런 조건에 적합한 곳이 많지 않다. 불과 몇 개의 소굴 밖에는 없다는 것은 흥제골 갈겨니가 항상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연관찰로가 부도전 앞에서 시작된다. 이곳 탐방로의 생태적 특징은 산중습지에 있다. 작은 개울이 산사

태 등으로 해서 지형변화를 일으켜 덮히면서 습지로 바뀐 곳이다. 습지 바닥은 이탄층으로 되어 있어서 푹신푹신하다. 이탄층이탄 바닥에 떨어진 식물의 잎과 가지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서서히 탄화되어 썩을 만든 곳을 가리킨다. 이탄층은 스펀지처럼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곳에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잠자리란, 은대나초, 물매화, 솟대 등과 같은 흔치 않은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다. 습지 주변과 햇볕 좋은 산기슭에는 봄꽃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레지와 노루귀를 비롯해서 개불알풀, 애기뽕풀꽃, 흰민들레, 현호색, 줄방 제비꽃, 남산제비꽃, 양지꽃, 구슬봉이, 팽이밥, 산자고, 족도리꽃, 금창초, 보춘화 등이 선두주자로 나섰다. 뒤이어 홀아비꽃대, 동자꽃, 산매발톱, 원추리, 금붓꽃, 양초, 산괴불주머니, 동굴레, 천남성, 피나물, 앉은부채, 개별꽃, 꿀풀 등이 저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올 것이다. 습지를 지나면 역새밭으로 가는 등산로와 상경성암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대나무, 참나무, 동백, 사스레피나무, 야생차나무 등이 한데 섞여서 특이한 식생을 보여준다. 키 작은 사스레피나무는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상록활엽수로, 흔히 꽃다발을 만들 때 잎과 가지가 들러리로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다음달이면 연한 황록색 꽃을 피울 것이다. 동백도 햇볕 좋은 곳부터 차례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어린 동백들이 송송 돌아나 있다. 바닥에 낙엽이 푹신하게 쌓인 상태를 멀칭(mulching)이라고 하는데, 멀칭은 땅을 덮어 토양유실과 냉해를 막아주고, 땅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상경성암으로 가는 능선 부근에서 소나무숲이 나타난다. 나무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소나무는 이곳처럼 저들끼리 회중(會衆)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활엽수 가운데 독살이를 하다보면 죽기 십상이다. 소나무와는 반대로 쫓이나 송악 같은 덩굴식물들은 저들끼리 회중을 이루어봐야 별수 없다. 다른 나무들 사이에 따로따로 독살이를 해야 나무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여울·소가 따로 존재하면 생태계 다양성 떨어져 야생차·참나무·대나무·동백 등 한곳에 식생



에 자리한 흥제골은 역새밭 발봉까지 길다랗게 나 있고, 동암골은 도갑산 중턱까지 나 있다. 그리고 안골이 도갑산과 주지봉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도갑사는 그 세 골짜기 들머리에 앉아있다. 월인교 아래로 도갑천 개울이 흐르고 있다. 가끔 장마철에 개울물이 범람하자 지난 2000년 가을에 영암군이 개울 주변을 수문 깎듯 정비해버렸다. 구조가 너무 직선적이라서 단순한 배수로에 그치고 말았다. 모를지 기 개울은 가장자리로 수생식물들이 들어차 있어야 수서곤충과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와 보금자리로 삼는다. 그리고 토사의 유실도 막아준다. 현재 개울 주변에는 갈대 한 포기 보이지 않고, 녹조류만 물속에 그득하다. 게다가 군데군데 보까지 막아서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골짜기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상수리, 말재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 산벚 같은 활엽수들이 입슬처럼 건강하게 서 있다. 숲 바닥에는 야생차들이



◇도갑사얼레지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수행의 길을 지켜드리는 두 “건강지킴이”

영양 균형·유해산소 예방에-반야정식·반야정명



차와 및 가맹점 모집 ▶두 가지 기능의 반야정식, 반야정명을 하나의 포장에 담아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90여종의 미량 영양소를 매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균형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유해산소는 자라친 신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건강저해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 영양균형에 반야정식**
 - ▶ 18종류의 통결초 자연추출물과 12종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미량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합니다.
 - ▶ 생체정보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양균형을 실현한 신개념의 균형 대체식대용 식품입니다. (특허출원번호: 10-2001-0027521)
- 유해산소 예방에 반야정명**
 - ▶ 유해산소를 비롯한 유리기체들 제거에 의해 건강이 손상되는 과정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 ▶ 베타카로틴, 소나무껍질 추출물, 효모 추출물, 맥류아미노산 등 8종류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유해산소 예방효과가 우수한 항산화 베타카로틴 식품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영양진행 형식은 수형인 ▶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수형성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편지 종사자 ▶ 디어에 도전하는 강령인

문의전화: 02-547-7056 ※ 피아트는 10년 역사의 건강기능성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한국비이오에너지의 프랜차이즈사업부입니다.

※ 전화주시편 관련 책자(김현원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를 보내드립니다.

